

호남대 '비전 2020' 선언

학생중심 A+ 대학 탈바꿈 '교육명문 TOP 10' 달성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학생중심 교육감동 A+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교육명문 TOP 10' 달성을 위한 '호남대 비전 2020'을 선언했다.

서강석 호남대학교 총장은 25일 호남대 광산캠퍼스에서 열린 2011 학년도 입학식 및 비전 2020 선포식에 앞서 24일 기 자간담회를 갖

으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 자격증 취득과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과목을 필수 20학점 이상으로 대폭 개편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전공지식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과목의 필수화도 대폭 강화했다.

총장 직속으로 교육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실무부서인 교육혁신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비전 2020' 추진을 전담토록 했다.

◇교육환경 개선=400명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면학에만 정진할 수 있는 기숙형 첨단학습시설인 청정 면학관 신축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도 주목을 끈다. 호남대는 지난 2006년 정보통신부 대학IT전공역량강화(NEXT)사업과 2009년 교과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각각 선정되면서 IT·CT 분야의 각종 시설과 산학이 연계된 교육네트워드가 탄탄히 구축된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났다.

◇대학 브랜드 제고=호남대는 '글로벌스타프로젝트(GSP)'를 추진한다. '인간미가 있는 교양인·개방적인 주체인·미래지향적인 전문인' 양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탁월한 전공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에 봉사하는 글로벌리더를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GSP는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호남대의 독자 교육 브랜드 '7 Star Awards' 프로그램을 기조로 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혁신=교과과정 전면개편 등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호남대는 사회와 기업이 기본적

교과 과정 전면개편 취업 경쟁력 강화 400명 수용 첨단 기숙형 면학관 신축 글로벌 리더 양성 '스타프로젝트' 추진

고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교육을 통해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전문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호남대의 비전 2020은 국내대학 최초로 특화된 '360도 방향 취업진로지도'에서부터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전면개편, 평생지도교수제, 기숙형 면학관 신축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대폭향상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 대학교육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혁신=교과과정 전면개편 등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호남대는 사회와 기업이 기본적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교수학습지원센터의 튜터링과 스터디그룹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수와 선·후배가 삼위일체가 돼 학생들의 학습진도를 수시로 진단하고 체계적인 보충·심화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각 학과가 HR 전문가 클리닉, Job 리더십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무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배치돼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될 것이다.

'360도방향 취업진로지도'로 대변되는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은 입학시부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성, 적성검사, 개별면담, 새로 개발된 학생역량진단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Only one)가



신입생들의 발랄한 댄스

24일 조선대학교 연주홀에서 열린 조선대 사범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과별 장기자랑에 참여한 남·녀 신입생들이 발랄한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대 평생교육원 귀농 아카데미 개설

광주대 평생교육원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귀농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귀농 아카데미는 전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들이 강의를 맡아 ▲전남도 귀농·귀촌 지원정책 ▲텃밭채소 재배 기술·관리 ▲유망과수·약초 재배 기술 ▲약용작물 핵심 재배기술 ▲귀농사례 발표 등을 중심으로 5주간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광주대 평생교육원이 지역민에 봉사하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강좌 수료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 농업기술원 입소 교육도 계획중이다. 수강문의 (062-670-2167~8).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보육평생교육원 2·3월 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보육전문평생교육원이 2월과 3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보육제작자들의 직능 향상 과정으로, 2월에는 영유아안전교육사2 및 유아안전교육사1 과정이 각각 26일 개강한다. 또 3월 7일에는 유아영어운동, 8일에는 아동미술상단, 9일에는 싸인올동교육사, 10일에는 책놀이지도사, 11일에는 아동놀이상담사 등의 프로그램이 개강을 앞두고 있다. 문의(062-375-2251).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면접 강화 등 교원 공채 엄격한 기준 적용

타대학·외국대학 출신 교수 늘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운수)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력 증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임교원 공채 심사를 강화해 전국 대학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거점대학으로서의 전남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그동안 통과리례에 그쳤던 면접심사를 지난 42회 공채부터 대폭 강화했다.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연구처장, 해당 학(원)장, 해당 학부(과)장 등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원자 1인당 면접시간 1시간을 배정해 강도 높은 평가를 진행했다. 또 심사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이 합격 점수를 줘야 면접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전남대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 잣대로 교원 공채를 진행한 결과 42회 공채에서는 모집정원 23명에서 14명만이 최종합격했으며, 43회 공채에서는 20명 모집에 11명이, 44회 공채에서는 26명 모집에 15명, 45회 공채에서는 33명 모집에 23명이 신규로 임용됐다(사진).

또 신입교원 중 타대학 출신이 42회 때는 50%, 43회 때는 63.6%, 44회 때는 60%, 45회 때는 66.7%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외국박사 학위 출신자들도 점차 늘어나 이번 45회 공채에서는 합

격자 전체의 3분의1인 8명이 독일, 일본, 미국 등 외국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신입교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 워크숍을 진행했다.

김운수 총장의 특강과 함께 '국립 전남대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를 가졌으며 ▲효과적인 강의전략 제언 ▲특성과 교육프로그램 소개 ▲선배 교수와의 대화 ▲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 실습 등을 통해 선진화된 교수법, 지식, 기술, 지혜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8독립선언, 3·1독립운동 92돌 맞아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회 학술회의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회(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와 KORiaspora연구회는 2·8독립선언과 3·1독립운동 92주년을 맞아 한일학자 국제학술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92년전 600여명의 동경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

을 했던 역사적인 현장인 동경 한국 YMCA(아시아센터)에서 25일 개최된다.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전남대 김재기교수="1929년 광주학생운동과 재일조선인사회의 지지" ▲케이오대 이흥천교수="재일조선인 抗日學生運動의 미디어이미지와 特高彈壓의 相關關係" ▲전남대 김홍길 박사="1930년대 재일조선인유학생운동의 전환과 분열" ▲전남대 장우권 교수="학생독립운동자료의 지식정보자원적 접근"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부대학교 학위 수여식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는 24일 오전 대학 삼대관에서 5층에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명예박사를 포함한 1000여명과 학교법인 우암학원 조영기 설립자·학원장, 조성수 총장 및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Wine partner '에끌 뒤 뱅' 입문과정: 6기 수강생 모집. '광주 와인 문화 일인지 금수장관광호텔'에서 진행되는 와인 스쿨 '에끌 뒤 뱅'의 입문 과정이 오는 3월 8일(화)에 개강합니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소 와인을 배우기 희망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강좌를 통해 와인이 주는 큰 행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와인파트너 홈페이지(www.winepartner.c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moviehelic and cinus advertisement. moviehelic: 상무점, 하남점. cinus: 상무점, 하남점. MEGABOX advertisement. cinus: 상무점, 하남점.